

COME&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워십
1부/하나님의 크신 사랑(찬55/새15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안지호 집사 2부/여흥평 집사 3부/윤주원 장로 4부/신영록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콰이어
1부/이 기쁜 날(이기경 편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John) 5:1-18 All 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9:1-12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궁예(8) 물이 움직이기 전에...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32) 여섯 번째 표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아 하나님의 은혜로(찬410/새31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찬330/새272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방향 더듬이'를 정하는 일-1

The Task of Setting the "Directional Feeler" (Part 1)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목회계획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 '방향 더듬이'를 정하는 일입니다. 제가 한 해의 목회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교회 표어, 곧 '방향 더듬이'를 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묵상하며, 프로그램보다 먼저 우리가 함께 바라볼 영적 방향을 세우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 표어를 정할 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아이디어나 시대의 유행이 아닌 그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묻고 세웁니다. 베델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특별새벽기도회에서 담임목사가 목회 방향을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목회계획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의 방향을 세워 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는 교회의 형편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핍니다. 위로가 필요한지,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 선교와 다음 세대를 향해야 하는지 시대적 요청을 분별합니다. 팬데믹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필요에 따라 Bethel Classical Academy를 설립한 것이 한 예입니다. 셋째는 시대의 질문입니다. 교회는 시대와 동떨어진 섬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음 세대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어떤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해의 목회 주제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표어를 억지로 '만든다'기보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목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발견한다'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또한 교회 표어는 성도들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단순해야 하고 영어권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로 주제곡을 만들어 온 회중이 같이 부르면서 한 해의 목표를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한 해의 주제가 설교에서 교육으로, 교육에서 행사로, 행사에서 조직과 사역으로 흘러가게 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하는, 목회의 '정렬(alignment)'입니다. 예를 들어 'Mighty God, Mighty Prayer' 표어였던 해, 선교운동 표어를 'Mighty God, Mighty Mission'으로 삼아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미 하고 있는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표어가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승객들이 배의 방향과 목적지를 알고 가야 하듯, 교회 표어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같은 방향으로 가는 비전으로 이끌어 가는 데 주효하다고 믿습니다.

Ministry planning is not about creating programs, but about determining the direction the church aims toward—the task of setting a "directional feeler." When I prepare for a year of ministry, the very first thing I ponder is establishing the church motto, or the "directional feeler." Meditating on the question, "What is God saying to our church right now?" I seek to establish the spiritual direction we will look toward together before diving into programs.

When determining the ministry motto, I consider three things to be important: First is the Word. Rather than individual ideas or the trends of the times, I ask what Word God is giving to our church that year and establish it based on that. At Bethel Church, during the New Year Special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that kicks off the year, the senior pastor proclaims the ministry direction to the congregation. Ministry planning begins with hearing the Word of God—not human thoughts—and establishing the church's direction according to that Word. Second is the church's circumstances. I examine where the believers and the church currently stand. I discern the demands of the times, such as whether comfort is needed, whether we need to stand back up, or whether we need to head toward missions and the next generation. Establishing Bethel Classical Academy in response to the need for Christian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after the pandemic is one example. Third is the questions of the age. The church is not an island disconnected from the times. We must listen to what the world is afraid of, why the next generation is leaving the church, and what questions our believers carry with them as they live in their workplaces and homes. At the intersection of these three elements, the ministry theme for the year is born. Therefore, rather than "making" a ministry motto by force, I prefer the expression "discovering" it through prayer, the Word, and observing the ministry field.

In addition, I believe that a church motto should be simple enough to naturally emerge within conversations, and it should also work well for English-speaking contexts. For this reason, we create a theme song for the church motto so that the entire congregation can sing it together, meditating on and committing to the year's goals. What I have considered important is the "alignment" of ministry—flowing the yearly theme from preaching to education, from education to events, and from events to organization and ministry, thereby connecting everything into a single direction. For example, in a year when the motto was "Mighty God, Mighty Prayer," we set the mission movement motto as "Mighty God, Mighty Mission," demonstrating that the whole church was heading in one direction and serving to align the church's many existing ministries into that single direction. While a church motto is not strictly necessary, just as passengers riding together on a ship need to know the vessel's direction and destination, I believe a church motto is effective in gathering the hearts of the believers and leading them with a vision to move forward in the same direction.



너무 궁금한 주일설교시리즈

예수님 이야기

-8-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물이 움직이기 전에...

(요한복음 5:1-18)

1.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앞에서도 계속 "물이 움직여야 하는데, 나를 넣어 줄 사람이 없는데..."라고 말합니다. 요즘 나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쳐다보고 있는 나만의 '물'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2.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나에게 직접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정말 달라지고 있습니까? 반대로 달라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3. 병자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아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까?
4.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병자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요즘 나에게도 '이것만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일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 예수님은 그의 몸만 고쳐 주지 않고 다시 찾아가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즘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6. 이번 주 내가 붙들고 싶은 한 문장을 골라 봅시다. '주님은 나를 보신다 / 주님은 아신다 /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계신다 / 38년보다 주님의 한마디가 강하다'. 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까?

적용하기



선교 후기
멕시코 일일선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번 멕시코 난민 선교는 배홍수 목사님과 이 장로님의 인솔 아래 난민센터와 지역을 섬기고 있는 Ven A Cristo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섬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두 번의 준비 모임과 매일 QT 나눔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이어졌고, 버스까지 길을 잘못 들어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럼



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기쁨으로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에는 95세 어르신부터 10세 어린이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고, 예수 청년들과 현지 4CM Worship팀도 함께했습니다. 의료, 안경, 뷰티, 음식, 아동 사역 등 각자의 자리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새벽 헵시바 예배로 시작하여 밤 10시가 넘어 돌아오는 긴 일정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버스 안에서 멕시코 도시와 미국과의 국경 장벽, 그리고 그 너머의 미

국 집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그 답을 4CM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이 우리가 준비한 음식과 여러 서비스를 받았지만 정작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쳐 주셨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앞서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부족한 저를 불러 주시고 함께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승호 집사

사역 소개
의무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드려요

'밴디지 하나 줄 수 있어요?'라며 서툰 한국어로 쭈뼛거리며 들어서는 아이, 알레르기 반응으로 입술이 붓는 것 같다며 상기된 얼굴로 다급히 들어서는 여학생, 더 불안한 모습으로 같이 온 교회학교 선생님, 다른 이에게 업혀 오는 응급환자, 오늘은 담당이 어떤 전문의인지 들여다보시고 선향 들어오지는 못하시는 어르신들. 하지만 일단 들어서기만 하면 편안히 만날 수 있는 의료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의 의무실입니다. First Aid 팀으로 불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살펴드리고,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베델의 의무실에는 매 주일 오전 8시 30

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의사와 간호사 각 한 분이 팀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대기하면서, 찾아오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신 은사를 통해 건강한 베델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감사와 겸손의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다.

높은 의료비와 복잡한 의료보험 체계, 언어와 의사소통의 한계, 오래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 답답한 미국 의료 시스템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은 각 분야의 전문 의사 선생님들과 현역으로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로부터 실질적인 상담과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주보 7면에 해당 주일과 다음 주일에 담

당하실 의사 선생님들의 전문 분야가 같이 안내되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르셔서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푸시고 간단한 치료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의무실 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박규희 권사



예배 간증
엘리사 새벽기도회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9월의 첫 주, 우리 소망목장은 '엘리사 새벽기도회'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년 초에 드리는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도 은혜롭지만, 언제부턴가 목장별로 마음을

한데 모으는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생겨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우리 소망목장 식구들에게 부어 주실 은혜도 두 배쯤 되리라 기대하며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 교회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로 신나고 설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추수감사절 때 뜨겁게 땀 흘리며 댄스 연습을 함께 했던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저절로 스텝을 밟듯 한층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충경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새벽기도회 말씀은 아침부터 우렁찬 목소리와 재미있는 예화 덕분에, 잠이 덜 깨어 비몽사몽하던 우리들의 영과 육을 번쩍 깨워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후, 우리 소망목장 식구들은 한쪽에 웅기종기 모여 서로를 위해 뜨겁게 손을 모았습니다.

목장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 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 이분에게 이런 남모를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알아가며 함께 공감

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눈물겹고 귀했습니다.

예배 후 교회 카페에서는 도우미 권사님과 매일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귀한 가정의 섬김 덕분에 정갈하고 맛있는 식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장로님이 정성스레 내려 주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더해지니, 공간 가득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지 못했던 목장 식구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며, 서먹했던 마음의 거리까지 부쩍 가까워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배도 빵빵, 영도 빵빵!'하게 가득 채워진 풍성한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새벽기도회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마음에 잔잔한 행복이 가득한 것은 모두 살아 계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소망목장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 주시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리영 집사

믿음의 고백
QTin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신명기 19장 14-21절. 오늘 말씀 가운데 '경계표'라는 단어에 마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어지는 증인과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도 사람의 경계표를 옮길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경계표를 조금만 움직여도 내 땅은 넓어지고 그 사람의 땅은 좁아집니다.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받아들이거나, 한 부분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다 보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들은 이야기를 통해 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여'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이 듣는 것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은 것이 전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선한 의도가 사실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내 해석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넘겨두는 것도 진실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분명해진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을 알기 전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진실이 확인된 후에는 공흘이라는 이름으로 진실과 공의를 흐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공의가 지나친 보복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그 한계를 정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계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경계표를 지키시고, 우리의 판단과 공흘에 경계를 세우시며, 공의조차 분노와 보복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공의에도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저 자신에게 돌려놓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인가. 지켜주는 사람인가. 좋은 공동체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경계표가 안전한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의 경계표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경계표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승진 전도사

교회학교
초등부 소개

주일이면 GYM으로 갑니다



How often do you go to the gym?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ore to follow about this...

초등부는 4, 5학년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이번 새 학기를 시작하며 많은 4학년 학생들이 올라와 약 100명의 학생들이 매주 예

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예배와 성경 공부, 그 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서입니다. 특별히 올해 초등부로 취임하신 이지원 (Cindy) 전도사님께서 생생한 말씀과 도전의 메시지로 매주 열정적으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15명의 헌신적인 선생님들과 에너지 넘치는 20명의 TA들이 이끄는 성경공부 소그룹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말씀을 곱씹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초등부를 섬기며 제가 항상 반성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리다고 생각했다가 큰코다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초등부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이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순수한 믿음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오히려 도전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초등부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시나요? 초등부는 교회 체육관(Gym)에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체육관은 본래 운동과 훈련을 통해 육체적인 건강을 키우는 곳이지만, 저희 초등부 학생들에게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 영적인 건강을 키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운동과는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운동하러 Gym에 가는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꼭 부푼 마음으로 교회 Gym으로 향합니다. 초등부 학생들이 장성하여 앞으로 베델의 훌륭한 일꾼으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초등부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로 훈련받으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부서가 되도록 섬기고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김정범 집사

교회학교
K-1 교사 졸업축사

Growing in His Love

Today is a joyful day as we celebrate our first-grade class as they move up to the Primary Elementary Department for 2nd and 3rd graders.

Each week, we watched you learn to pray with confidence and listen to God's Word with open hearts. On your first day as kindergarteners, many of you were still learning to read, memorize the Lord's Prayer, and worship with the praise team. But now, you've grown taller and more confident, with a strong foundation in knowing God and His Word.

We bless each of you and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 Always remember that Jesus is with you, even when you are sad, or crying. We are so proud of you. Keep shining His light wherever you go.

Congratulations, first-grade class! We're excited to see all that God will do in your lives.

최진나 집사

좋은 아침이에요, K-1 친구들!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멋진 날이에요. 우리 K-1 친구들이 한 뼘 더 자라 새로운 반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정말 자랑스러워요!

K-1에 처음 왔던 날을 기억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조금 부끄러웠고, 어떤 친구들은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을 보세요!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자기만의 말로 기도하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마음도 몸도 정말 많이 자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그러니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반에서도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친구들에게 친절하며,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신나는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요.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강하고 친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신수정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동사목사: 황모세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수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수채플: 공병주 목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인턴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수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성인 세례 및 입교식

세례는 모든 성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갚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내 것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례자에게는 기쁨이 되며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는 구원이 하나님께는 은혜임을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입교는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았던 자녀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결단과 헌신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는 예식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믿음을 지키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격려받는 날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귀한 예식에 많은 분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신청 기간/방법: 9월 20일(주일)~10월 11일(주일), 홈페이지 및 QR 코드
- ▶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 ▶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 ▶ 전체 오리엔테이션 일시/장소: 10월 11일(주일) 오후 1시, 비전채플 *신청자와 신청학생의 학부모 필수 참석
- ▶ 대상: KM 성인, 예수, BYM Jr 학생 신청자, BYM High 학생 신청자, CIM 학생 신청자, 신청 학생의 학부모
- ▶ 교육 일시: 10월 18일(주일), 10월 25일(주일), 11월 1일(주일) 오후 12시 45분
- ▶ 교육 장소: 임마누엘채플(JM, 예수, CIM, BYM, 소망부는 각 부서에서 교육 진행)
- ▶ 문답 시간/장소: 11월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실(A254)
- ▶ 전체 리허설: 11월 21일(토) 헵시바 예배 참석 후 오전 8시, 본당 *세례/입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
- ▶ 세례/입교식: 11월 22일(주일) 오전 11시 3부 예배 중
- ▶ 문의: 박재문 장로 (949)241-4987, 이형석 목사 (714)944-8339



〈신청하기〉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9,10월)	9/27: ①부-유형석	②부-이국선	③부-윤태경	④부-이진호
	10/4: ①부-이상태	②부-이봉윤	③부-이상노	④부-권승재
	10/11: ①부-이상원	②부-이석희	③부-이원희	④부-이정수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9,10월) | 9/26: 이용준 10/3: 이현동 10/10: 김정범 10/17: 이영복

강단꽃(9,10월) | 9/20: 김미숙, 김순옥 9/27: 선상균, 윤태경 10/4: 김순옥, 엄기환 10/11: 윤성자, 윤주원, 최경식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변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오선희

다음주 | 의사-Charles Oh(ENT), 간호사-박필연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동사목회를 시작하시는 황모세 목사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설립 50년 주년의 감사** 교회 설립 50주년과 더불어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50년도 기대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으로 함께 걸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 **김한요 목사와 함께 떠나는 마지막 수요말씀여행 '인생바다에서 만난 구명선'** 수요말씀여행의 마지막 시간 '예정론'이 진행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어 그 다음 주 수요일(30일)부터는 황모세 목사와 함께 떠나는 수요말씀여행 '하나님이 만드신 참 아름다운 나라'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일시/장소/문의: 9월 23일(수) 저녁 7시, 본당,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고 베델가족이 된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갖습니다. 목회자 및 교회 리더십분들과 함께 하는 찬가와 은혜로운 교제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10월 10일(토) 오후 5시(4시 20분부터 담임목사와 미니데이트 사진 촬영)
장소/문의: 비전채플, 석승진 장로 (949)232-0872, 황의진 집사 (949)929-5620

◆ **세례/입교 신청** 대상자들은 오리엔테이션, 세례 교육 및 문답 리허설을 참석과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살, JM, 소망부는 각 부서별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7면 참고)
일시/문의: 11월 22일(주일) 3부 예배, 박재문 장로 (949)241-4987

◆ **기도사역 연합기도회/기도학교 세미나** 골방기도, 레위기기도, 두드림, 기도편지, 기도학교로 동역하시는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연합기도회 후, 기도학교 세미나가 진행되오니 기도학교 훈련생들은 필히 참석바랍니다.
일시/장소: 9월 26일(토) 헵시바 예배 후 오전 7시 30분, 살롬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주일예배 주차 안내** 주일예배 시 본당 주차장에 주차 공간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본당 주차장은 주차 퍼밋을 받은 차량만 이용 가능하오니, 그 외의 차량은 비전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 2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셀모임이 있으시더라도 예배 후 차량을 출차해 주셔서 다음 예배 시간을 위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셔틀버스 운행시간/문의: 오전 5시 30분-오후 2시 30분, 김주홍 집사 (213)880-1022

Bethel Announcements

◆ **예살 B&B(Barbeque & Boba) 캠퍼스 전도 및 교회 초청** 가을 학기 인근 대학의 신입생들을 전도, 초청하여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캠퍼스 전도: 9월 22일(화), 24일(목), 25일(금)
초청 행사/문의: 9월 26일(토) 5시, 교회 체육관, 공병주 목사 (213)660-9477

◆ **교회학교 캔디 드라이브** Family Fall Fest(10월 31일)에 자녀들을 위해 사용될 캔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참여한 친구들은 달란트를 받습니다. 견과류 제품이나 할로윈 장식이 있는 캔디는 피해주세요.
기간/대상: 9월 27일(주일)-10월 25일(주일), 영아부-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버스 세차 봉사** 한 주도 빠짐없이 성도님들의 발이 되어 준 교회 버스를 깨끗하게 단장하려 합니다. 수건과 세제 등 필요한 것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일시/장소: 9월 26일(토) 헵시바 후 오전 7시 30분, 코트야드
문의: 심진규 집사 (714)715-6308

◆ **B2N 2027 연합기도회 2차 등록** 초대 초대교회의 시작점이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깃든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Blessings to Nations(B2N) 2027' 연합기도회의 2차 등록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코트야드에서나 QR 코드
일시/장소: 2027년 4월 22일(목)-26일(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아스펜도스 원형극장
문의: 황세현 장로 (949)648-1907, 이충경 목사 (949)537-6968



◆ **탈북자 복송 반대 기도회**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강제 복송을 막기 위한 집회가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 솔티) 주관으로 열립니다. 많은 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9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장소: 로스앤젤레스 중국 영사관 앞, 443 Shatto Pl, LA CA 90020
문의: Rand Millar 집사 (949)235-8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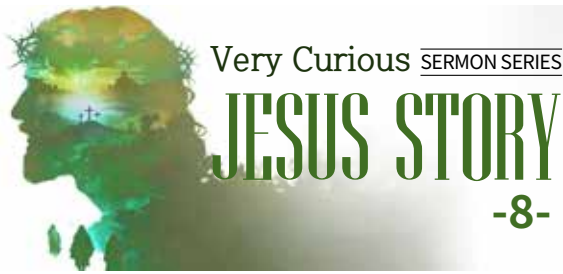
◆ **큐티인 10월호 판매** QTin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10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축하해주세요**
- 정용형/김보리 집사의 가정에 딸 예은(Joanna)이가 9월 3일(목)에
- 김형준/송수빈 성도의 가정에 딸 윤아(Elisha)가 9월 15일(화)에
- 조성지/박송주 성도의 가정에 아들 이레(Asher)가 9월 16일(수)에 태어났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가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Before the Water Stirs...

(John 5:1–18)

1. The man who had been ill for 38 years kept saying to Jesus, "The water needs to be stirred, but I have no one to help me in..." Do I also have my own 'water' or 'method' that I look to more than God these days?
2. Imagine Jesus asking me directly today, "Do you want to get well?" In what part of my life do I truly want real change? On the other hand, is there anything I say I want to change, but am still holding on to?
3. The man did not seek Jesus first, nor did he even know who Jesus was. Yet, Jesus saw him first, knew his condition, and came to him. Looking back on my life, is there a moment when I realized, 'Jesus came looking for me long before I ever sought him'?
4. The man's words, "I have no one to help me", remain in my heart. Is there something in my life right now that leads me to think, 'If only I had this...'? Am I assuming that because I lack that one thing, even God cannot work in my situation?
5. Jesus did not just heal the man's body; he sought him out again to speak about the problem of sin. Lately, have I been seeking Jesus merely to solve my problem, or have I been seeking Jesus Himself?
6. Let us choose one phrase to hold onto this week. 'The Lord sees me / The Lord knows me / Even if there is no one, I still have the Lord / One word from the Lord is stronger than 38 years'. Why do I need that word right now?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